

아, 코로나 코로나!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아,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고 보니 아주 오래된 옛 노래(올드팝송) 하나가 생각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세환이 변곡해 부르기도 했던 ‘코로나 코로나’. 노랫말에 수십 번 나오는 ‘코로나’는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모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는 꿈에서도 볼까 두려운 악마의 이름이다.

어릴 적 티브이(TV)에 나오는 의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었다. 죽어 가는 사람들을 멋지게 살려냈고 ‘블링블링’ ‘럭서리’ 했으며 예쁜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 ‘의사가 되고 말 데다. 의사가 되어 찬란한 인생을 사는 거야.’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된다. 박 원장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밟는다. 초·중학교 시절엔 피시방이나 노래방 가고 싶은 마

음도 억누르고, 재수·삼수 시절엔 술 마시자는 친구들의 유혹도 물리치며, 드디어 의대 합격!

이제 찬란한 인생이 시작되게 했다. 그러나 의대 6년은 더 어려웠고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은 더욱 힘들었다. 가까스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군의관 3년2개월과 순환기 펠로우 2년에 소화기 펠로우 2년을 견뎠다. 어느덧 40대 대머리 아저씨가 되긴 했지만 거역 대출을 받은 뒤 상가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그렇게 박 원장은 내과의원 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손님은 뜸하고, 마누라 펄똥 구입 카드 대금 청구서는 수시로 날아들고, 빚만 3억이 넘는 데 매출 적자는 1천만 원 이상 쌓여 갔다.

도시엔 적막에 휩싸이고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중동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마누라는 무섭다며 병원 나가자 말라는데, 월세 내야 하고 월급 줘야 하고 카드 값도 갚아야 하는 우리의 불쌍한 박 원장은, 손님이 있든 없든 병원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기침도 나고 열이 난다는 어느 환자를 진료하면

서 ‘혹시 어디 다녀오신 데는 없냐’ 질문을 던지는데,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지난해에 중동에서 낙타 타고 낙타 1339에 전화해서야 이런 데를 오시면 어떡해요? 박 원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결국 그 환자는 43번째 확진자가 되었고 박 원장은 폐쇄된 의원에 자가 격리되었다. 급기야 환자의 동선마저 노출되더니, ‘박 원장 내과는 앞으로 절대 방문하지 말라’는 뉴스까지 뜨고 만다. ‘아, 이렇게 망하면 내 병원 대출금은 누가 갚는 거지? 목숨을 건 진료의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의사가 되어 멋지게 살아 보라던 박 원장의 꿈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만다.

이상은 대중 즐겨 본 인터넷 웹툰 ‘내과 박 원장’의 줄거리다. 독자들은 한결같이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는 반응을 보인다. 문제는 만화보다 현실이 더할지 모른다. 코로나 공포가 온 나라를 엄습하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저희 병원과 무관합니다.’ 얼마 전 화동동 미래로 21병원이 병원 입구에 이런 안내문을 내건 것도 코로나 공포가 얼마나 심한 것인

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병원 측으로서는 광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16번)가 발생했던 광주 21세기병원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유스퀘어에서는 또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터미널 내 대형서점에 쓰러졌던 2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사실은 SNS에 급속히 퍼지면서 광주 사람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긴급 이송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끝에 이 젊은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때서야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진술을 변백했다. 사람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하지만 요즘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다시금 적막에 휩싸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벌써 두 달째.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인들은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짓는다. 이따금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행여 바이러스가 옮을까,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왠지

결한 젊은이들 목소리 대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빈 거리를 채운다. 주말 영화관도 띄엄띄엄 앉아 있는 몇몇 관객이 보일 뿐 영사기만 저 혼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반면 아파트 주차장은 차를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집 밖으로 나가면 만지게 될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등 모든 것이 찻점할 뿐이니 두문불출. 마스크도 병의 전파를 막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내 몸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일부 세균을 다시 들이마시니 건강에 해롭다는 말도 있다. 그래, 당분간은 방에 꼭 처박혀 지내는 ‘방콕’ (유식한 말로 하면 ‘자발적 자가격리’)이 상책(上策)이다.

이 시련 언제쯤 끝나려나

혼자 방 안에서 TV를 보다 보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으나, 화면 아래쪽에 중국어 자막이 눈에 띈다. 한국 체류 중국인의 방역 협조를 위해 제공되는 국민행동수칙이다. 자막 중에 모르는 한자가 보인다. ‘해수’ (咳嗽).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깨닫는다. 기침을 뜻하는 우리말 ‘해소’가 사실은 한자말 ‘해수’ (咳嗽)의 변한 말로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알게 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코로나로 인한 ‘자발적인 자가격리’가 가져다 준 작은 소득.

TV에서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통계와 사망자 통계를 내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어제부터 어느덧 1100명을 넘어섰다. 이중 절반가량이 신천지 예수교 관련자들이다 한다. 우리 과거 조류독감의 사례에서 동물의 경우 밀집 사육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한데 사람도 좁은 곳에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치르다 보면 탈이 나는 것 같다. 예로부터 ‘남녀 칠세부동성’ (男女七歲不同席)이라 했거늘, 아무래도 ‘집회와 예배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할 듯싶다. ‘예배를 볼 때 신자와 신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2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 원 이상에 처한다.’ 집에만 있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아, 이 지독한 시련은 언제쯤에나 끝나려나. 정부에서는 또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그 말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늑대소년의 말처럼 미덥지가 못하다.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슬픔이 너무 길다. 고통이 너무 길다. 오작교도 없이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수수가 너무 길다.

‘코로나19’ 예방...전국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

정부, 어린이집 이용 최대한 자제...근로자 부모 돌봄휴가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까지 꺼내 들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도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휴원하더라도 당면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속 될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가기 때문에 아파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소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 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봄비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다음달 8일까지 일시휴원한다’는 안내홍보문이 붙어있다. /최현배 기자choi@

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면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연기·취소하라”

정부, 집단행사·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 개정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은 ▲ 행사의 시급성 ▲ 감염 전파 가능성 ▲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와 야외행사 중 밀집해 비발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또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

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기관이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행사가 방역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의 보완이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침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과 학교는 유증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고령자와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찾지 않는 게 좋다.

이밖에 일부 소득제는 환기한 뒤 다시 쓸 수 있게 소득 지침도 개정됐다. /연합뉴스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공장부지 매매” (급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